



성당을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면 '냉담자'이지요? 그런데 성당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는 동생과 친구를 보면 하느님을 깨닫고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것이라 싶네요.

예리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두루뭇술 넘겼던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으니깐요.

교회의 냉담자 분류는 행정상의 조치이며 교회 살림과 교우들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냉담자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회를 등져서 믿음의 행보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 분리된 교회의 모습이 그분 마음을 아프게 후벼대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여 교회는 일치할 날을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선택은 지극히 개인적인 자유 영역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신교에는 그분께 인호를 받은 사제가 없는 까닭에 성찬의 전례가 거행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워주신 가톨릭 교회의 전례 전통이 과감히 생략되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취향에 따라서 고르는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더 재밌고 신나고 내내 흥겨운 것이 믿음의 척도일 수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풍요하고 귀한 진리의 증거자가 되기 위하여 도약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세우신 정통 교회의 은총을 잃어버린 손해를 깨닫게 하는 참 일꾼이 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이의 행복

(시편 32,1-7)

시작 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517장 “내가 절망 속에”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 주님! 저희가 죄에서 벗어나 당신의 행복 속에 살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한 분이 시편 제3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32.1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이 덮여진 이!
- 2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일에 거짓이 없는 사람!
- 3 제가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하였더니
나날이 신음 속에 저의 뼈들이 말라들었습니다.

- 4 낮이고 밤이고
당신 손이 저를 짓누르신 까닭입니다.
저의 기운은 여름날 한더위에
다 빠져 버렸습니다.
- 5 제 잘못을 당신께 자백하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제 허물과 잘못을
당신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 6 그러므로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모두
곤경의 때에 기도드립니다.
큰물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이다.
- 7 당신은 저의 피신처.
곤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에워싸십니다.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 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 내가 잘못했던 일들을 용서받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죄는 많은 경우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싶다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고 싶지 않다는 욕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들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안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하느님과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느님보다 세상을 선택합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 안에서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다시 찾았을 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동안 당신을 떠나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잊어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됩니다. 이를 위해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내 욕심을 비워내고, 죄에서 벗어날 때 하느님께서서는 그 빈자리에 당신의 은총을 가득 채워 주시고,

우리들의 보호자로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시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림시기는 우리들이 욕심과 죄를 되돌아보며 돌아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림시기를 보내면서 진정으로 하느님께로 돌아가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37번 “행복한 사람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사랑과 친교의 공동체 |

- 삼계본당 구역부 정회숙 글라라 -

신마산에서 쌀재터널을 지나오다보면 왼쪽 산 위로 보이는 법륜사 절과 그 앞 참 좋은 교회 사이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삼계본당이 있습니다. 봄이면 개구리소리가 들려오고, 여름이면 감천계곡에서 물놀이도 즐길 수 있는 공기 좋은 곳에 자리한 삼계본당은 젊고 멋진 신부님과 두 분의 수녀님 그리고 6개 구역과 24개 반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지난 2014년에 본당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짧은 역사의 본당이지만 어느 본당보다 젊은 반·구역장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전례봉사를 하고 교중미사 후에는 마당에서 반별로 차(茶)봉사를 통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친교의 장을 만들어 갑니다. 크고 작은 행사에도 언제나 구역별로 나누어 봉사합니다.

5구역 3반은 아파트와 주택으로 구성된 공동체라 모임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많은 반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 주일 오후에 소공동체 모임을 갖습니다. 혹여나 잊고 있을 반원들을 생각해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려주며 참석을 권유합니다. 반장님의 적극적인 활동과 반원들의 배려로 늘 8~12명의

많은 반원이 참석하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 소통하고 친교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모임은 각 가정에서 돌아가며 갖고, 방문 때는 언제나 기쁘게 환영하며 가정기도를 통해 깊은 감사와 사랑을 나눕니다.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소공동체 모임 때에는 특별히 어르신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들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성스레 맞난 다과도 준비해 나누고 공동체에 함께 하지 못하는 반원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또 병환으로 누워 있는 반원을 자주 방문하고 기도로 위로해주며 본당의 소식과 공지사항, 행사 등도 전달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살아 온 시간은 짧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선물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근원이시며 친교의 모범이신 삼위일체 하느님!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주시고, 사랑과 친교 속에서 복음 선포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